

gil
good in life
길

앞으로 나아가는 힘



오늘도 한 걸음

얼마전, 조용필 콘서트가 큰 화제였지요. TV로 방송된 그의 콘서트는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꽤 오랫동안 이야깃거리를 쏟아냈습니다. 일흔다섯의 나이에 2시간 30분 동안 게스트 없이 홀로 28곡으로 무대를 채웠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이지요. 무대를 엮어낸 수많은 히트곡엔 입이 떡 벌어졌고요.

카메라에 잡힌 관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돌 팬 못잖은 열정으로 폐창을 하는 중장년들,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부부, 저 노래를 알까? 싶은 젊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까지. 세대를 초월한 ‘국민대통합 콘서트’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았지요. 무엇 보다 나이를 지운 듯 곳곳하고 단단한 그의 목소리와 가창력은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올해 일흔다섯. 최근 개봉한 영화 <홍이>의 주연 배우 변중희 역시 화제에 올랐는데요. 39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65살에 영화배우로 데뷔했답니다. 오십이 다 되어 취미로 연극 동호회에 발을 들인 게 계기였다지요. ‘시간이 맞으면 해보자’는 생각으로 수많은 감독 지망생의 작품에 출연하며 쌓은 필모그래피가 어느덧 서른 편 남짓. 현실적이고 섬세한 연기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만들었답니다. 그의 배우 도전을 마뚝잡아하던 남편의 지지도 얻어냈고요.

그는 “자람을 멈추지 말자. 늘 성장하자. 단 Imm라도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매 작품을 대한 답니다.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늙은이가 아닌 젊은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남긴 그의 수상소감은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목소리가 늙지 않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한다는 조용필, ‘나이’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에서 부딪히며 배워가는 변중희. 칠순을 훌쩍 넘기고도 두 동갑내기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나이 정한 기준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요. 오늘도 한 걸음,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가장 강한 힘이란 걸 몸소 보여주면서요.

03

Intro

오늘도 한 걸음

04

Theme 1

생명을 살리는 힘

08

Theme 2

여성중앙센터

10

Theme 3

신속대응팀

12

Theme 4

지역을 넘어 세계로
의료 역량 강화

14

Theme 5

결에 머무는
따뜻한 시간

16

Good Doctor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피워내는 손길

20

Health 1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

22

Health 2

미리 알고 대비하기
치매

24

Health 3

늘어나는 한국인의
피부암

26

Korean Medicine

재발성 호흡기 감염의
이해와 관리

28

Team

환자의 회복을 돕는
전인적 치료를 지향합니다

32

Essay

아름다운
마무리

34

Temple

시간이 눈처럼
소복소복 쌓인 절

38

Law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소송 승소 후, 성공적인 추심

40

Book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5

Donation

보시공덕

생명을 살리는 힘

병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는 곳이다. 환자의 고통과 회복, 가족의 걱정과 안도, 의료진의 집중과 헌신이 함께 어우러지며 순간순간 다른 풍경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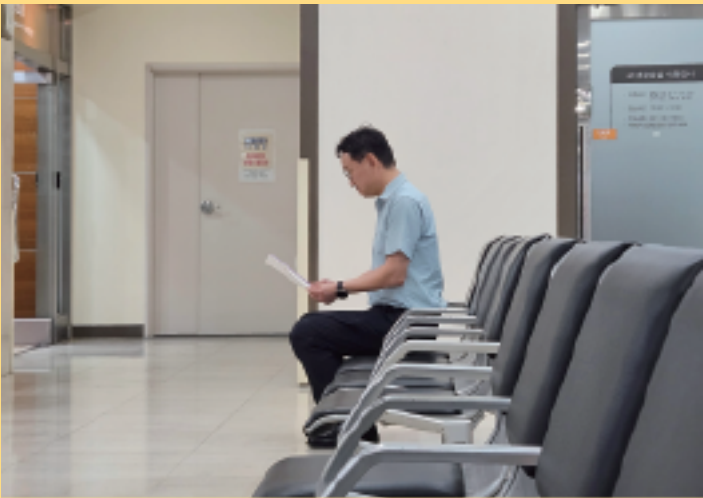


불안과 희망의 사이

수술실 앞에 서는 순간, 환자의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눈빛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간다.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지만 동시에 회복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의료진은 반복된 준비 과정 속에서도 매번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환자의 떨림과 의료진의 집중이 교차하면서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만 향하는 곳은 같다. 환자는 회복을 바라고, 의료진은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환자의 불안은 곧 희망으로 이어진다.

병원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환자는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보호자는 차례를 묻고 또 확인한다. 환자에게는 멈춰 선 듯 느껴지지만 의료진에게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기록되고 판단된다.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시간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아지는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기다림 속에 지쳐 있을 때도 의료진은 그 시간을 치료의 과정으로 쌓아간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의사는 표정과 말투, 작은 몸짓까지 살핀다. 검사 결과와 기록을 머릿속에서 재조합하며 최선의 판단을 찾는다. 환자는 몇 분의 대화 속에서 안심하거나 불안을 느끼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 뒤에는 수많은 확인과 경험이 숨어 있다. “괜찮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은 환자에게 전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과 전문성이 겹쳐진 확신이며, 결국 환자와 의사의 신뢰로 이어진다.





병동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늦은 밤, 병동은 고요하다. 복도를 밝히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 낮게 신음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가 통증을 참으며 몸을 뒤흔친다. 간호사의 처치에 환자의 숨이 안정된다. 환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길을 보낸다. 고요한 밤, 작은 안도의 숨결이 병실에 번진다.

위기의 중심에서

응급실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 의료진의 운명은 즉시 경보를 울린다. 눈은 환자의 표정과 몸짓, 생체 신호를 동시에 읽고 머릿속에서는 기록과 경험이 빠르게 재조합된다.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며 판단이 내려지고 손은 필요한 처치로 움직인다.



가장 작은 생명을 향한 가장 큰 노력

부모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닿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한다. 짧은 면회 시간이지만 그 순간은 아기에게도, 부모에게도 깊은 울림이 된다. 의료진의 세심한 손길과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더해져 아기들은 한 뼘씩 자라난다. 이곳은 생명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자리이자 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숨결을 이어가는 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떨어지는 혈압,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발걸음이 재빨리 모이고 몇 초 안에 판단과 지시가 오간다. 환자는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의료진은 망설임 없이 자리를 메운다. 긴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이들의 발걸음은 환자의 삶을 이어가는 다리가 된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위로와 격려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이며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사람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겪는 두려움과 통증 앞에서 건네는 한마디는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준다. 환자는 그 말에 마음을 열고 의료진의 안내와 처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몸과 마음을 지탱한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곁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는 커다란 힘을 얻는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눈빛으로 함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이 버팀목이 된다. 그 믿음은 치료의 과정에서도 환자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의료진의 설명을 듣는 순간에도 낮은 기계와 약물 앞에서도 가족의 존재는 보호막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한마디 격려가 길고 지친 시간을 견디게 하고, 작은 미소가 다시 내일을 바라보게 만든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 솔루션

여성종양센터

여성의 삶은 가족과 사회를 따뜻하게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 소중한 일상이 건강 위에 놓여 있는 만큼, 아픔을 조기에 발견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여성종양센터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로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약속한다.

두려움 뒤에 찾아온 안도

40대 후반의 김 모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다. 가슴에 작은 멍울을 느끼고도 “설마 큰 병이겠어”라는 생각으로 미뤄두었다. 하지만 우연히 받은 진료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뒤늦은 후회를 안게 되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치료 가능성이 높았고, 의료진의 세심한 안내와 신속한 협진을 통해 수술과 치료 일정을 차분히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숨어 있는 위험, 여성 종양

김 씨의 사례처럼 여성 종양은 ‘조기 발견’과 ‘맞춤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실제로 중앙암등록본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으로 전체 여성 암 발생의 21.8%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자궁내막암은 과거에는 주로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발생했지만, 요즘은 초경이 빨라지고 임신·출산이 늦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발병률이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게 발견된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아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여성 암으로 꼽힌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성종양센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여성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유방외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 유방 질환과 자궁·난소 질환은 물론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전문 의료진의 유기적 다학제 협진

검사·진단·치료까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최소침습수술

여성만을 위한 편안한 진료 공간

악성 종양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을 통합적으로 진료한다. 여성종양센터는 가임력 보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암 치료나 난소 수술, 조기 난소 기능 저하 등으로 생식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종양 전문의·생식내분비 전문의·난임 연구원이 협력해 맞춤형 치료 전략을 마련한다.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전문 의료진의 유기적 다학제 협진

여성종양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다학제 협진 체계다. 산부인과와 유방외과뿐 아니라 비뇨의학과, 혈액종양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적의 치료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검사에서 진단,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치료 시작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최신 의료 장비와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AI 기반 3D 자동 유방초음파 장비는 유방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촬영해 조기 병변 발견과 정확한 판독을 지원한다.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최소침습수술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흉터를 줄이고 회복을 앞당겨 환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은 가족의 건강을 지탱하는 존재이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가정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여성종양센터가 김 모 씨와 같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조기 발견과 맞춤 치료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

신속대응팀 RRT

Rapid Response Team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신속대응팀(RRT)을 운영하며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대응한다. 위기 앞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생명을 살리고 병원의 신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기 앞에 선제적으로 대응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특히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이상 신호가 중대한 응급 상황으로 번지기까지는 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 RRT)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환자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팀’이 아니라 악화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해 환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으로 중증 저산소 환자 안정

신속대응팀은 최근 AI 기반 병동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AI RRS)을 통해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킨 사례를 보고했다.

해당 환자는 방광암(bladder cancer)으로 입원 치료 중 이던 90대 남성으로, 주치의가 퇴근한 늦은 오후 시간에 AI RRS에서 산소포화도 저하 알람이 발생했다. 즉시 병실로 출동해 환자를 평가한 결과, 심박수가 빠르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이에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해 상태를 지속 관찰하며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한 저산소혈증이 확인되었다. 신속대응팀은 즉시 해당 진료과에 상황을 공유하고, 고유량 비강 캐놀라(High-flow nasal cannula)를 이용한 고유량 산소요법을 적용하여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켰다. 이번 사례는 AI 조기경보 시스템과 신속대응팀의 긴밀한 협력이 병동 내 환자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두 가지 핵심 역할과 운영 범위

RRT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맡는다.

첫째, 전산 시스템과 AI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활력 징후와 임상 데이터를 상시 확인하고 위험 신호를 선별한다.

둘째,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동으로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시 전문 의료진과 협력해 치료를 이어간다.

운영 대상은 병동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중환자실, 응급실, 회복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등은 제외된다. 즉, 일반 병동에서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RRT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병원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RRT

신속대응팀(RRT)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응급상황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병동 의료진은 수십 명의 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만큼, 환자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모두 잡아내긴 어렵다. 그러나 신속대응팀이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진은 심리적 부담을 덜고 환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RRT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처치에 그치지 않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병동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을 통해 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전체의 환자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해 ‘환자 곁에서 위기 순간을 지키는 병원’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RRT는 단순한 대응 조직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는 안심을, 의료진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다.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신속대응팀의 활동은 앞으로도 병원의 안전과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의지가 신속대응팀의 중심에 담겨 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APEC 2025
정상회의 협력병원 지정

지역을 넘어 세계로 의료 역량 강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 의료의 자부심을 세웠다.
응급의료센터를 확장하고
전용 병동을 새롭게 단장해 국내외
귀빈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변화는 국제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걸음이 되고 있다.

국제행사 의료지원 거점병원으로 도약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되며, 국제행사 의료지원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병원은 회의 기간 국내·외 주요 인사와 내·외국인 방문객의 안전한 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확장과 전용 병동 조성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현장 종합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상시 대기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이송된 모든 환자가 치료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신속·안전 진료 체계 완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기존 20병상에서 28병상으로 진료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부터 처치·이송까지 일원화된 진료 프로세스로 재정비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내 대기 공간, 소아진료실, 소생진료실, 중증응급환자진료실, 관찰격리실, 음압격리실 등 진료 인프라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외국 정상과 주요 귀빈의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전용 진료 구역과 VIP 병실, 전용 라운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해당 구역의 의료진 전용 동선을 확보하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구조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대규모 국제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다국적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번역 프로그램 사용과 외국어 대응 인력 충원을 통해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최신 의료 장비인 인공심폐기(ECMO) 도입 및 자동흉부압박소생기(LUCAS 3)를 추가 도입하여 응급 환자 대응의 정확성과 생존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심정지, 중증 외상, 급성 심·폐 질환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실현을 향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이번 협력병원 지정을 계기로 국제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의료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단순히 국제행사 대비를 넘어, 지역민에게도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 기반 확충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신혜경 병원장은 “이번 응급의료센터 확장과 전용 병동 조성은 지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국제행사의 성공적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의료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이어 갈 방침이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 난치병 어린이 격려 자비나눔 방문

곁에 머무는 따뜻한 시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았다. 아이들의 웃음과 반짝이는 눈빛 속에 스님의 격려와 자비가 스며들었고, 그 마음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병원 안 가득 퍼진 의미 있는 날이었다.

희망을 품은 발걸음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은 지난 9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난치병 어린이에게 치료비 3,000만 원과 선물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스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이해원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등이 함께했다

취임 3주년을 앞둔 진우 큰스님은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오랜기간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직접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마음을 채운 특별한 선물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이 병원 5층 법당을 찾아 도균 군(가명·13세, 남) 가족을 만났다. 도균 군은 선천성 유전적 질환인 헌터 증후군으로 인지발달 지연 등의 어려움 있고, 주1회 효소 대체요법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스님은 치료비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전했고, 특히 도균 군이 가장 원하던 태블릿을 선물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했다. 뜻밖의 선물에 도균 군의 얼굴

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평소 병마와 싸우느라 힘들어하던 모습은 잠시 사라지고 아이의 눈빛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은 곧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평소 걱정과 염려로 마음 졸이던 가족은 아이의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에서 안도와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눈높이에서 건넌 응원

이어 진우 큰스님은 소아 운동 및 작업 치료실에 방문해 난치병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아 운동 치료실에서 재활 중인 최해진(가명·2세, 여) 어린이는 선천성 질환인 굴지 형성 이상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구부러져 있는 매우 드문 희귀질환 중 하나로, 재활 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스님은 낮은 자세로 해진 양과 눈높이를 맞춘 채 재활 훈련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밝은 모습으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훈련 중인 해진 양에게 미소와 박수를 보냈다.



작은 손끝으로 전해진 마음

진우 큰스님은 이어 소아 작업 치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사지 마비 증상을 가진 오정윤(가명·2세, 남) 어린이를 만났다. 정윤 군은 양수 과소증으로 인해

조기 출산을 하면서 양쪽 공팔에 다낭성 신장 질환이 생겨 현재 복막투석 중이었다. 의료진은 향후 정윤 군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윤 군을 따뜻하게 품에 안은 스님은 천천히 피아노 건반을 함께 누르며 놀이를 시작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오가며 소리를 내자 스님은 그 소리에 맞춰 살짝 웃음을 지으며 칭찬을 건넸다. 정윤 군 역시 스님에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이며 꾸벅 인사를 하기도 했다.



건강을 향한 바람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은 “우리 불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종단도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자비 나눔방문은 아이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바람이 깃든 자리였다.

스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아픈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자비심이 담겨 있었으며, 건넌 격려의 말씀과 다정한 눈빛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전했다. 🌸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피워내는 손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성형외과
임수아 교수

사고와 질병으로 신체에
깊은 상처를 입은 환자들에게
재건성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일이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삶의 복원’을
꿈꾸는 의사.
임수아 교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의사다.

성형외과는 예쁜 얼굴을 만드는 과가 아닙니다

첫마디부터 단호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성형외과
임수아 교수는 ‘성형’이라는 단어에 담긴 오해부터 바로
잡는다. “저희가 하는 일의 80% 이상은 재건성형이에요.
사고나 화상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위를 메우고, 부서진
뼈를 맞추며, 보통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요.”
화상이나 사고, 선천적 기형 등으로 신체 일부가 손상된
환자들에게 성형외과는 단순한 ‘미용’의 공간이 아니다.
삶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곳이다.

“머리뼈가 덜 자라 기형이 된 아이의 머리 모양을 잡아
주거나, 안면 골절로 일그러진 얼굴을 재건하는 것도 모두
성형외과의 몫이에요.”

임 교수는 물론 미용성형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모의 변화를 위한 수술이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치료라고 말한다. “외모가 바뀌면 마음이 바
뀌고, 자신감이 생기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재건
성형과 미용성형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환자의 삶을 다시 잇는 손끝

그의 진료실에는 다양한 사연을 품은 환자들이 찾아온다.
한 20대 여성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전기장판에 정강이를
데어 병원을 찾았다. 화상 깊이는 3도, 피부는 물론 지방층
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다른 병원에서 오랜 치료 끝에 지쳐
있던 환자에게 임 교수는 주변 조직을 이용한 피판술(주변의
피부를 옮겨 덮는 수술)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환자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꼭꼭
눌러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

또 다른 대학생 환자는 끓는 주전자가 고양이에게 쏟아
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고양이를 막았다.
허벅지에 깊은 화상을 입고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치료하다 2차 감염까지 생겼다. 임 교수는 피부이식과
성형을 통해 구축(관절운동이 제한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왔고, 학생은 다시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상처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흔적이 마음을 위축시키죠. 그래서 저는 상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회복시키려 합니다.”

잘못은 미워해도 상처는 보듬어야 한다

의사로서 잊히지 않는 기억도 있다.
“아버지가 화집에 불을 질러 자신과 아들이 함께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30%, 아들은 70% 전신 화상이었습니다. 아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빠 손잡아 줘’ 하며 아버지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 교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결국 치료는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은 미워해도 상처는 보듬어야 한다. 그게 제가 의사로서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수많은 환자들의 신뢰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선생님을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상처를 넘어 삶을 되찾게 하는 손길, 그것이 재건 성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치밀한 계산과 창의력, 그리고 손끝의 예술

“수술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임 교수의 수술방은 치밀한 계산과 창의적 발상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수술 전에는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한다.

“마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계산하고 철저히 준비하죠. 수술하다보면 뭐든 빨라져요. 말도 빠르죠.” 웃으며 덧붙인다.

재건 수술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의 피부를 떼어 손상 부위를 덮기도 한다.

“허벅지 안쪽 피부를 얼굴에 이식하는 식이죠.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식부위도 어느정도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매력에 빠져 성형외과를 선택했고 수련기간 수많은 피부이식과 연부조직 재건수술을 익혔다.

“수술이 계산대로 완성될 때의 성취감, 그게 제겐 최고의 보람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의사가 된 계기는 자연스러웠다. 외과의사였던 아버지 덕분이다. 어려서 3층짜리 건물의 1층은 병원, 3층은 집인 구조에서 살며 아버지 병원을 놀이터 삼아 자랐다. 여섯 살 무렵, 발톱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발톱을 아버지가 단번에 뽑는 장면을 본 것이 강렬하게 남았다. “그렇게 쉽게 뽑히는 게 신기했고,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때 ‘의사가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문의 수료 후 미용성형으로 개업도 해봤지만, 결국 그는 대학병원으로 돌아왔다. “미용은 환자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지만, 재건성형은 삶을 되돌려주는 일이라 보람이 큼니다.”

스스로도 손재주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는 일상에서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즐긴다. 재봉틀로 커튼을 만들고, 병원 근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목공으로 소품을 만든다.

“수술도, 재봉도, 농사도 결국 손끝의 섬세함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재밌어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

그는 개원의를 거쳐 늦게 교수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열 명이 넘는 레지던트를 배출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외 학회에서 화상 재건 관련 연구를 꾸준히 발표하며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자전거와 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 장비를 착용하세요. 넘어질 때 얼굴이나 팔다리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안와골절, 광대뼈 및 코뼈 재건 수술도 자주 한다.



“아이들의 전기 사고도 많습니다. 양손 열 손가락 중 여섯 개가 사라진 세 살짜리 아이도 봤어요. 집에서 콘센트 구멍을 막고, 식당에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쾌활한 성격으로 대화만으로도 에너지를 주는 임수아 교수는 오늘도 힘차게 수술방으로 향한다. 불에 타버린 피부, 일그러진 얼굴, 그 모든 상처 위에 삶을 다시 피워내기 위해서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성형외과
임 수 아 교수

전문진료분야
급성화상, 화상반흔구축, 전기화상, 두경부외상,
미용성형, 동안주름성형, 체형교정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노면이 얼기 쉬운 겨울은 실내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낮은 기온으로 몸이 경직되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뼈가 약해진 중년층 이상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골다공증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낙상 등으로 인해 뼈가 부러진 후에야 알게 되어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나 고관절이 골절되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불편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고 회복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합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뼈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뼈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의 소실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남녀 모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까? 골다공증 자가 점검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 폐경 후 여성이다.
- 70세 이상의 남성이다.
- 성인이 된 후 골절 병력이 있거나 1차 친족 중에 골다공증성 골절 병력이 있다.
- 저체중이다.
-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한다.
- 육체적 활동이 부족하다.

물론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해조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연어, 달걀 노른자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 **규칙적인 운동** »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걷기,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의 체중 부하 운동이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 **생활 습관 개선** »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골밀도를 낮추고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의 파괴를 억제하거나 뼈 생성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물 복용을 통해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튼튼한 뼈가 필수적입니다. 혹시 지금 허리가 아프거나, 키가 줄어든 것 같거나, ‘나는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골다공증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김 조 은 교수

전문진료분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미리 알고 대비하기 치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후천적 원인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의 집합으로, 대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며 전체 치매의 약 60~7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큼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약 10%,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이 치매를 두려워하지만,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증상

정상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과 같이 사소한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건망증과 구별이 쉽지 않지만, 치매에서는 단순한 기억력의 장애뿐만 아니라, 지남력(시간 · 장소 · 사람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이나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전반에서 장애가 나타나며 성격 변화와 망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저하되면 얼마 전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한 번 해놓은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언어장애로 인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물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력저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향감각이 상실되어 자주 가던 곳을 가지 못하고 해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계산능력이 저하되어 이전에 잘하던 돈 관리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치매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일부는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계감염, 수두증, 양성 뇌종양, 갑상샘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 등 완치할 수 있는 치매가 전체 치매의 약 10~1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가 어려운 퇴행성 치매의 경우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혈액검사 등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 영상 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관리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고 유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상에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초기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여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인지기능을 개선시키고 치매 환자의 운동 기능을 유지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방

치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면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란셋(Lancet)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14가지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치매를 최대 45%까지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모두의 위험을 높이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청력과 시력의 손실도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력, 청력을 보호하고 검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중년기부터 지속적인 인지활동과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노년기에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머리 외상 예방과 우울감 관리도 중요합니다. 미리부터 건강한 신체 활동 · 인지활동 · 사회활동을 실천하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



동국대학교일신병원
신경과

서지원 교수

전문진료분야

인지기능장애,
치매,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늘어나는 한국인의 피부암

최근 몇 년 사이, 외래에서 피부암 환자를 보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인에게 흔한 질환’으로 인식했으나, 이제 한국인에게도 피부암은 결코 드물지 않은 질환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는 지난 10년간 약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야외활동의 증가, 그리고 자외선 노출 습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피부암은 기저세포암(basal cell carcinoma)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입니다. 전자는 주로 얼굴, 코, 눈가처럼 햇빛이 잘 닿는 부위에 발생하며 천천히 자라지만, 방치할 경우 주변 조직을 침범해 미용적·기능적 손상을 남깁니다. 후자는 보다 공격적이며,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흑색종(melanoma)의 발생률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조기 발견이 늦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암입니다.

일상 속 자외선 노출, 피부암 증가

과거에는 농업, 어업 같은 야외직 종사자 중,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면, 요즘은 등산·골프·자전거 등 레저 활동이 늘어난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두피, 여성의 팔·다리 등 자외선 차단에 소홀한 부위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며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얼굴 역시 위험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인공 태닝이나 UV 램프 사용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피부암은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암입니다. 문제는 초기에 단순한 점이나 사마귀로 착각해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색이 불균질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점, 크기가 6mm 이상이거나 최근 커진 병변, 피가 나거나 딱지가 반복되는 병변, 장기간 지속되는 색소 변화나 궤양’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장기이식 후 환자들은 피부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 높습니다.

예방과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

예방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긴소매 의류 착용이 중요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며, 자동차 유리창도 완벽한 차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햇빛은 건강에 좋다’는 오래된 믿음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장질환이나 암에는 민감하지만, 피부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한가운데 생긴 피부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술 후 결손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미세수술이나 피판 재건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방과 조기 진단이 곧 최선의 치료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실외 활동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피부암은 더 이상 희귀 질환이 아닙니다. 피부암의 증가는 단순히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주기적인 피부 자가검진과 전문의의 진단은 조기 발견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저 검게 그을린 피부’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알아채는, 지금 자신의 피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작은 습관이 향후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예방이 될 것입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성형외과

이준호 교수

전문진료분야

화상, 안면외상,
수부 및 미세수술,
육창, 미용



감기를 달고 사는 우리 아이 재발성 호흡기 감염의 이해와 관리

겨울은 소아 호흡기 질환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계절이다.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 실내 생활의 증가, 그리고 면역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소아의 특성이 겹치면서 호흡기 감염의 빈도가 높아진다. 특히 일부 소아는 감기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며, 매년 특정 계절에 자주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임상적으로 재발성 호흡기 감염이라 한다.



재발성 호흡기 감염은 1년간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빈번한 감염으로, 크게 상기도 감염(비염, 인두염, 편도염)과 하기도 감염(기관지염, 세기관지염, 폐렴)으로 구분한다. 연령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0~2세 소아에서 연간 상기도 감염이 7회, 기관지염이 3회, 폐렴이 2회 이상이면 재발성으로 본다. 2~5세에서는 상기도 감염 연 6회, 하기도 감염 연 2회, 폐렴 연 2회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내 6회 이상의 호흡기 감염, 그중 하기도 감염이 3회 이상(폐렴 1회 포함)이면 역시 재발성 호흡기 감염으로 판단한다.

발병은 주로 생후 6개월에서 6세 사이에 흔하며, 특히 1~3세 영·유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면역체계가 점차 성숙함에 따라 발생 빈도는 뚜렷하게 감소한다. 임상적으로는 주로 겨울과 봄철 기온 변화가 큰 시기에 잘 발생하며, 여름철에는 비교적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재발성 호흡기 감염은 반복되는 감기와 발열, 기침, 콧물로 시작해 중이염이나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비염, 만성 기침이나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재발성 호흡기 감염을 폐계 허약아의 특징적 증상으로 보았으며, 고대 의서에서는 ‘自汗易感(자한이감 : 조금만 땀을 흘려도 쉽게 감염됨)’, ‘虛人感冒(허인감모 : 체질이 허약하여 잘 감기 걸림)’, ‘體虛感冒(체허감모 : 체력이 약해 잦은 감염)’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의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변증하여 치료한다.

폐비양허(肺脾兩虛)

- 증상 : 잦은 감염, 쉽게 피로, 식욕부진, 기운 없음
- 치료 : 健脾補肺(건비보폐 : 비위를 튼튼히 하고 폐를 보강)
- 처방 : 補中益氣湯(보중익기탕) 등

영위실조(營衛失調)

- 증상 : 오통 · 오한, 자한, 반복적 감염
- 치료 : 調和營衛(조화영위), 益氣固表(익기고표)
- 처방 : 玉屏風散 합 六君子湯(육병풍산+육군자탕) 등

비신양허(脾腎陽虛)

- 증상 : 발육부진, 창백한 얼굴, 변비, 야뇨
- 치료 : 溫補腎陽(온보신양 : 신장의 양기를 덥히고 보함), 健脾益氣(건비익기 :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운을 보함)
- 처방 : 理中丸 합 金匱腎氣丸(이중환+금궤신기환) 등

기음양허(氣陰兩虛)

- 증상 : 손발 열감, 도한, 피로, 식욕부진
- 치료 : 益氣養陰(익기양음 : 기운을 보하고 음을 기림)
- 처방 : 生脈散 합 沙蔘麥冬湯(생맥산+사삼맥동탕) 등

폐위실열(肺胃實熱)

- 증상 : 인후통, 구취, 잦은 발열, 땀 많음, 변비
- 치료 : 清瀉肺胃(청사폐위 : 폐와 위의 열을 내려줌)
- 처방 : 小柴胡湯(소시호탕) 등

이외에도 貼敷療法(접부요법 : 삼복접 등)과 捏脊療法(날척요법 : 등을 따라 마사지하는 요법) 등이 면역력 강화와 예방에 사용되어 왔다.

재발성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경향이 있지만, 예방적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

- **실내 환경 관리** : 습도 40~60% 유지, 하루 2~3회 환기, 청결한 환경 조성.
- **체온 조절** : 얇은 옷 겹쳐 입히기, 땀 난 후 즉시 갈아입히기, 외출 시 목도리 · 마스크 활용.
- **균형 잡힌 영양과 수분 섭취** : 단백질 · 채소 · 과일 고루 섭취,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비타민 D 보충.
- **규칙적인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 강화.
- **개인위생과 예방접종** : 손 씻기 · 기침 예절 철저, 독감 ·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재발성 소아 호흡기 감염은 단순히 ‘감기를 자주 앓는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소아의 면역력 · 체질적 특성 ·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임상적 문제이다. 대다수는 성장하면서 면역이 성숙해져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반복되는 듯하기도 감염이나 폐렴은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부인소아과
김은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
한방소아청소년과 질환,
한방여성 의학과 질환



환자의 회복을 돕는 전인적 치료를 지향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한방재활의학과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전인적 치료’를 지향한다.

한의학의 전통적 원리에 기반하면서도 최신 의학기술과 연구를 접목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실현하고 있다. 진료팀과 연구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간다.

전통과 현대기술의 융합,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한방재활의학과 김호준 교수는 “전통적인 한방치료에 수기치료, 전기치료, 영양의학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진료’가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침·약침·부항·한약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나치료와 전기치료, 기능 영양의학적 접근을 함께 적용한다.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기혈 순환’을 바탕으로 서구의 보완·대체의학적 자연치료법을 융합해 치료의 효율성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 교수는 “전인적 접근은 한의치료의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환자를 단순히 근육 이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신 체형의 균형, 생활 습관, 정서·심리적 요인까지 함께 살핀다. 서양의학이 구조적 손상에 주목한다면 한의학은 신체 전체의 순환과 균형 회복을 통해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처럼 신체와 마음, 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한방재활의학과와 가장 큰 강점이다.



근골격계 질환부터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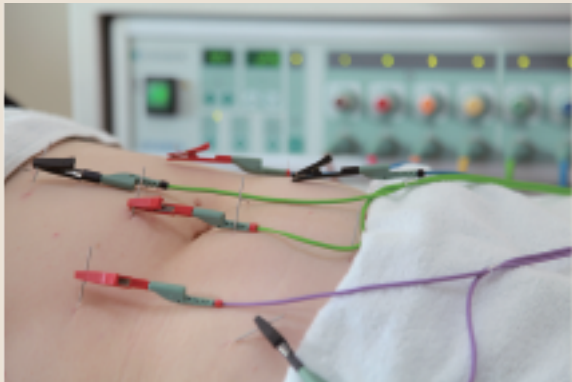
한방재활의학과를 찾는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외상이나 골절 수술 후 통증, 허리·어깨·무릎 관절 질환, 디스크·협착증 등 만성 척추질환 환자들이 주를 이룬다. 한방에서는 단순히 통증 부위만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대와 근육의 기능 강화와 혈류 개선을 통해 전신의 회복을 유도한다. 그 결과, 통증 감소뿐 아니라 기능 향상과 재활 촉진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마비 재활도 중요한 진료 영역이다.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후 발생하는 편마비·사지마비 환자에게 침, 한약, 전기치료, 부항, 뜸 등을 병행해 운동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와의 긴밀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입원과 외래를 아우르는 통합 치료가 가능하며, 양방과 한방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도 꾸준히 내원한다. 골절과 같은 명확한 구조적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 움직임 제한 등 근골격계 증상은 물론, 불안이나 수면장애 등 자율 신경계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증상에 맞추어 단순 진통을 넘어 통증의 근본 원인과 정서적 문제까지 함께 다스리는 통합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비만 및 체형 관리도 중점 진료 영역이다. 2023년 합류한 한경선 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체중 감소가 아닌 비만을 유발한 대사 불균형의 교정을 목표로 한다. 한의학에서는 비허, 간울, 식적 등 변증을 통해 원인을 세분화하고, 한약·식이·운동을 맞춤형으로 처방한다. 체중 변화뿐 아니라 대사 개선, 비만 관련 합병증 예방,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며, 부작용이 적고 지속 가능한 치료를 목표로 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한방 협진의 시너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및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양·한방 협진이 강점이다. 한방재활의학과 역시 재활 의학과, 정형외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술 후 통증 관리와 기능 재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방이 손상 부위를 수술·재건하고 전문적인 운동치료를 시행한다면, 한방은 통증 조절과 전신 순환 개선, 기력 회복을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이고 일상 복귀를 앞당긴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양방 입원 중 한방 외래 치료를 받거나, 반대로 한방 입원 중 양방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연한 협진 시스템은 환자 중심의 통합 치료를 실현하며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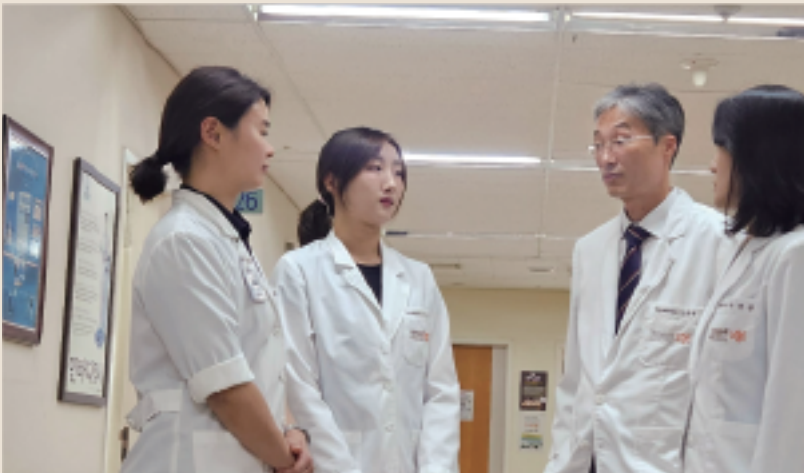
기초연구와 임상 연구를 함께하는 통합 시스템

한방재활의학과는 진료뿐 아니라 임상 및 기초 연구팀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과 기초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개연구를 지향한다. 병원 내 의과학연구소에서 동물실험·세포실험·환자 검체 분석을 수행하며, 한방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팀은 왕징화 연구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연구원, 대학원생, 임상 연구간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상과 기초가 긴밀히 연계된 구조로 운영된다.

임상 연구팀은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치료의 효과를 근거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전체·대사체·장내미생물 분석을 통해 약물 기전과 맞춤 한약 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다.

기초 연구팀은 세포 및 동물실험뿐 아니라 예쁜꼬마선충 모델을 활용하여 근감소증, 비만, 노화 및 수명 연장 등과 관련된 한약의 생물학적 작용 원리를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 한방 정책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기초와 임상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연구팀은 주 1회 저널클럽과 연구 세미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스터디를 진행한다. 이처럼 연구자와 임상의가 지속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융합·통합 연구가 실현되고 있다.



한방의 과학화 선도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는 다양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약의 효능과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근거 기반 한의학을 구축하고 치료에 대한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진료 현장에서 얻은 임상 경험은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 성과는 다시 치료 전략으로 환류된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연구와 진료의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 한방재활의학과 의 가장 큰 강점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한방재활의학과는 전통의학의 지혜에 과학의 근거를 더해, 환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진료를 실천한다. 통증의 완화에서 일상의 복귀까지,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진들의 진심이 함께한다. 🌻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무여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스님의 마무리는 이해하고 감사하고
단순해지는 것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동안 누린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생각하는
것이다. 올해 마지막 달력을 마주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칭찬해 주어야겠다.
일 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고, 잘 버티고 견뎌왔다고
스스로 말을 걸어본다. 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하여
후회할 일도 하였겠지만, 잘못된 것보다는
잘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격려한다.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 전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마무리, 멋진 마무리를 생각해 본다.

‘마무리’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회향’이라고 표현한다.
법회의 마지막 순서에 회향을 하는데,
회향(廻向)이란 회전취향(回轉趣向)으로
‘돌려서 나아감’의 뜻이다. 글자 그대로
‘무엇을 돌려서 무엇에 향함’이란 말이다.

무엇을 돌려서 무엇에 나아가는가?
자신이 얻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공덕을 돌려서 일체중생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그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돌려서 다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향이다.

평소에 존경하는 법정 스님의 글에는 따뜻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맑고 향기로운 여운이 있는 법정 스님의 책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의례를 마칠 때에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회향하는 게송을 외운다.

원이차공덕(願以此功德)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보급어일체(普及於一切) 널리 중생에게 회향하오니
아등여중생(我等與衆生) 나와 모든 중생들이
당생극락국(當生極樂國) 모두 극락에 태어나
동견무량수(同見無量壽) 다함께 아미타불 뵈옵고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위의 게송은 모든 공덕을 이웃과 깨달음과 진리에
돌리는 회향하는 게송이다. 게송의 구절구절에 나와
남을 돌이 아니게 생각하여,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원이 담겨 있다.

좋은 것을 나만 갖고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마음은 인색한 마음이고, 그 반대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마음은 자비한 마음이다.

“

무엇을 돌려서 무엇에
나아가는가? 자신이 얻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공덕을
돌려서 일체중생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인색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지만, 반대로 자비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해동안
누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공덕의 씨앗을 심으며
아름답게 회향하면 좋겠다. 🌸

글 무여스님

現 고양시 보리선원 주지 / 유튜브 '무여스님 TV' 운영 /
달마사 · 화계사 · 연운사 불교대학 강사 / 저서 <우리 함께 떠나요>

템플 스케치

제주도
제주시
관음사

시간이 눈처럼 소복소복 쌓인 절

#1

온전한 겨울은 눈이 펄펄 쏟아져야
완성된다는 생각을 나는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눈 소식을 기다리다가 함박눈이
소복이 내린 오래된 절을 걷고 싶어 찾은 곳이
부안 내소사였다. 대학을 갓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떠나 엄청난
눈을 만난 곳도 이곳이었다.
그때의 기억은 모든 것을 백(白)으로 덮은
고요함이었다. 처음 느껴보는 그 고요함이
당혹스러웠고, 감동적이었으며, 편안했다.

그냥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을 마당과 석탑, 법당을
쌓인 눈의 무게로 휘청하며 소리를 내는
풍경(風聲)을 들으며 걷고 싶었다.
그냥 무작정 걷고, 달빛 아래 서 있고,
까만 밤을 하얗게 만드는 눈을 맞으며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3

어제 오후 도착했을 때부터 대웅보전 창호의 꽃무늬에 마음을 빼앗겼다. 색이 모두 바래고 나뭇결마저 오랜 시간을 덮고 있었지만, 그 정교함이 놀라웠다. 창호를 만든 목수가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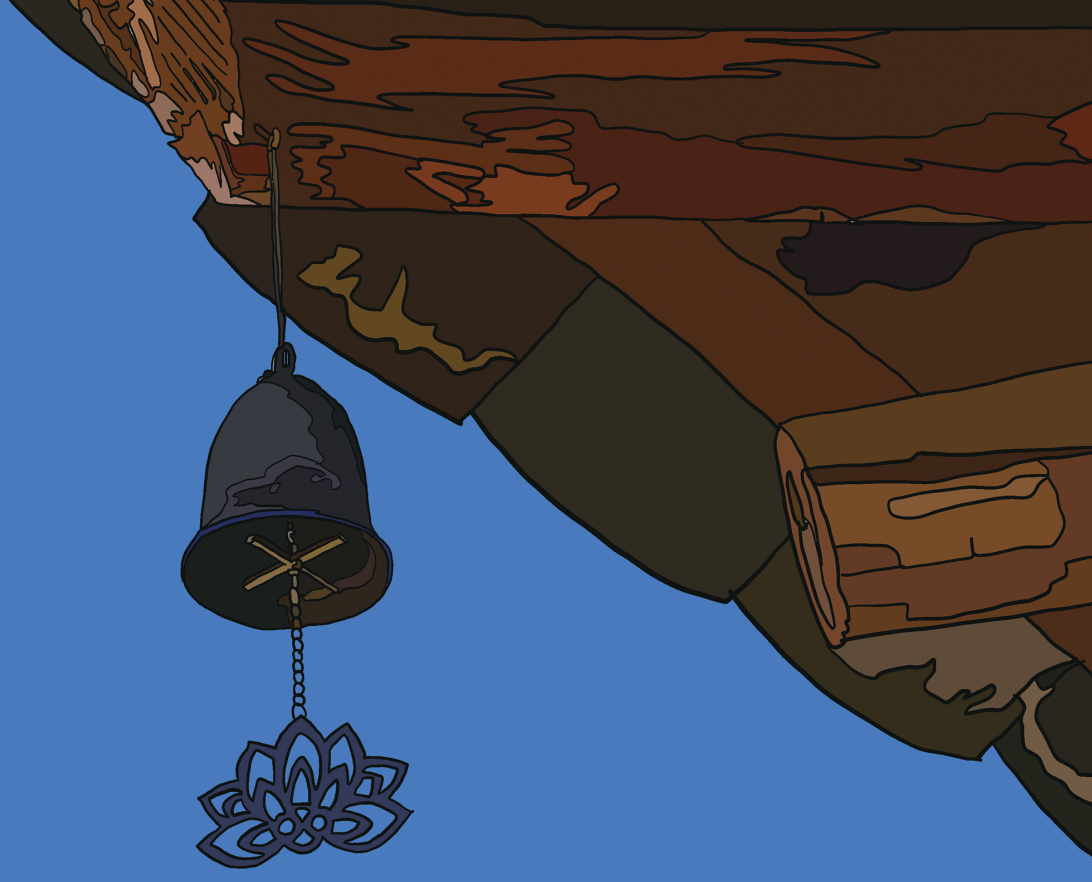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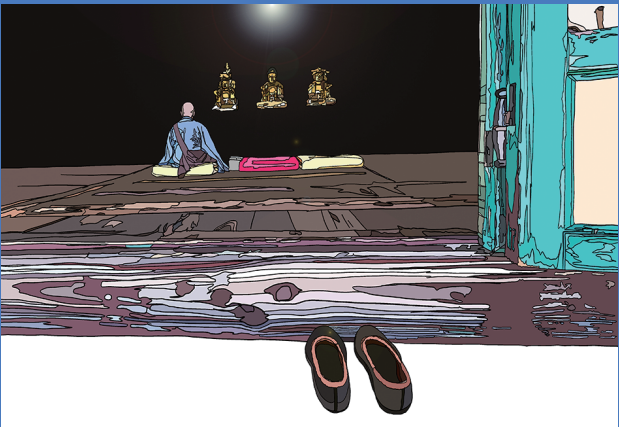
나는 절집에 있는 오래된 것들을 사랑한다. 폐사지에도 부서진 석물이나 석탑, 당간지주는 남아 그 자리의 시간을 이야기 해준다. 부처의 얼굴이 남아 있지 않은 석불, 흐릿한 연꽃 문양, 날개의 일부가 남은 비천상 등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과거의 시간을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선명했던 그 모습을 그려 넣어본다.

가만히 창호에 손을 올렸다. 별을 받은 나무꽃의 기운이 손을 타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2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눈 위로 달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용히 방에서 빠져 나왔다. 그리고 뗏돌에 쪼그려 앉아 시리게 파리한 달을 만났다. ‘달님이 그리웠습니다.’라고 마음속 이야길 꺼내 놓았으나 달은 아무 말도 없었다. 잠시 찬 바람과 눈이 멈춘 것이 대답이었을까?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법당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따뜻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지붕에 쌓인 눈이 툭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던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고 가만히 누워 눈을 들었다.



#4

차가운 산바람에 처마마다 걸린 풍경이 맑은소리를 냈다.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풍경이 파란 하늘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하늘을 연못으로 만들었다. 하루 만에 하늘은 파란 물을 타 놓은 듯 맑았다.

느긋한 걸음으로 전각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남쪽 담장 문으로 나가니 개울의 낭랑한 물소리가 가늘게 옆구리로 끼어들었다. 하늘을 가리고 뾰은 창창한 참나무 숲은 절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수행자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숲으로 들어서 나무들 사이를 걷다가 무심하게 놓인 벤치에 앉았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문 안과 밖이 다른 온도를 갖고 있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담장 너머가 궁금해 다시 산문으로 들어섰다.

봄이면 벚꽃과 매화, 모란으로 절집을 가득 채우는 이곳이 지금은 눈꽃으로 가득했다. 돌계단을 올라 요사채가 있는 마당에 들어서면 쏟아지는 눈 속에 선 소박한 석등이 함장한 노스님처럼 서 있었다. 작은 석등이 어느 큰 절집처럼 우쭐대거나 사람의 기운을 압도하지 않아 편안한 시골집을 찾아온 듯 겨울의 여유를 누리게 했다.

글·그림 **배 종 훈**
넋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출간도서> 유림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외도 관참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소송 승소 후,
성공적인 추심을 위한
필수 전략

웃이 얇은 사람이 느끼는 겨울이 겨울의 참모습이다. 기가영(가명)은 30년이 넘는 노주택에서 4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데, 11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외풍이 너무 심해서 별도 난로를 켜지 않고는 지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남편 이블리(가명)는 낡은 집이지만 함께 보낸 추억이 담겨 있으니 참고 지내라고만 말할 뿐이고 이사를 하거나 집을 보수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기가영은 과감하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결심하고 역세권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기가영은 매달 분담금을 열심히 납부해서 총 1억 2천만 원이나 냈지만, 가입 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전혀 진척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조합장 류수현(가명)은 조합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증서는 무효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도 90% 이상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40%도 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추심이 어렵다.
기가영은 변호사 도움으로
압류·추심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하며 권리
회복의 길을 열었다.

기가영은 세이드(가명)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보수로 2천만 원이나 지출했지만, 승소 후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지역주택조합의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기가영은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을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으로 납부해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기가영은 조합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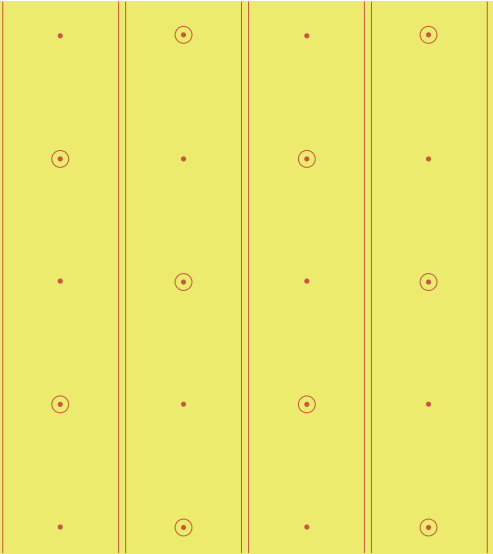
먼저,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고, 대부분 재산을 신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조합 명의로 된 재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강제집행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고,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조합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감치에 처해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금관리 신탁사를 상대로 수익금 반환채권을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압류 추심명령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추심 최고를 해야 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자금관리 신탁사는 자금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조합이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자금을 지급한다. 이 자금집행의 의사표시 없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 한 자금 집행의사표시 청구,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근저당권자 등)가 배당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 간다.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서 조합원 유치를 한 조합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또,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조합 명의 부동산 목록을 받아서 등기부를 꼼꼼히 보고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 추심은 여러 수단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추심방법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국 기가영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부 금액을 회수하며, 늦게나마 권리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 🌻

글 주상은
現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말이 넘쳐나는 시대,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은
절집 기둥에 걸린 주련을 통해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마음을 지탱해
온 지혜를 되짚습니다.
짧은 문장 속 깊은 사유는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명구(名句)’가 존재합니다.
명구에는 위인들의 명언이 당연히 속할 겁니다.
어느 천만 영화에 나와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대사가 속할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소설 속
문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때, 그 순간만큼은
유일무이한 명문장이 됩니다. SNS를 보다가
어떤 익명의 사용자가 남긴 촌철살인의 댓글도
때론 명구가 될지 모르죠.

이러한 문장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여 웃음이나 눈물이 나도록 하고,
옛 추억에 잠겨 향수를 느끼게 만들거나,
때로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독자가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삶의 시선을
배우게 되는 방법, 다양한 관점을 정제된 언어로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에 걸린 명구가
있습니다. ‘주련(柱聯)’입니다.

‘주련’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주련이란 특정한 시구나 문장을 종이 혹은 판자에
새겨 기둥에 잇달아 걸어 둔 장식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절에 방문하게 되면 간혹 옛 건물의
문 양옆으로 늘어선 기둥에 한문이 적힌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련입니다.
이 글은 보통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에 그 내용을
단번에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찰의
방문객 대다수는 그 앞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
자신이 방금 지나친 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책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은 저자가 우리나라의 사찰 곳곳을
방문하며 만났던 다양한 주련을 들여다봅니다.

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卽是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

깨달음의 도량은 어디인가?
지금 생사가 있는 바로 여기다.

- 본문 중에서 -

주련에 기록된 글은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고승들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절이란 수행자들의 터로서, 불법(佛法)이
함께하는 수행 공간과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 사이를 잇는 가교의 역할이 주련이었던
셈입니다. 수행자들은 법당에 발을 딛기 전,
주련을 먼저 마주하면서 자신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깨닫고 마음을
가다듬어 수행에 몰입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은
오래도록 우리의 곁에서 깊은 사유와 성찰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주련을 오늘날의 새로운
고전으로 다시금 조명합니다. 수백 년 동안 법당
기둥에서 수행자들의 마음을 지탱해 온 주련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왔습니다. 이 책은 그 짧은
글귀들이 품은 지혜를 되짚는 과정에서
흐트러졌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사유의 물꼬를 터 줍니다. 길을 잃기 쉬운 세상
속에서 주련은 시대를 넘나들며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내면을 정돈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저자 목경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과
글이 쏟아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은 그 속에 끊임없이 노출되죠. 하지만
그 무수한 말 중 정작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말하기에만
열중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듣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언어들을 뱉고, 경청하는 이는
점점 사라집니다. 때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분명 말과 글은 늘었으나 마음을 지지해 줄
단단한 말, 삶을 붙잡아 줄 깊이 있는 문장을
찾으려면 너무나 많은 내적 소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어디에서 숨 쉬고 있을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은 말이
가벼워진 오늘날, 내면을 정돈하는 언어를 되새기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싶은 이들을 위한
굳건한 기둥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유방암 ·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진료 역량 입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유방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암 및 호흡기 질환 치료 우수기관으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유방암 평가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 비율△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환자 비율△수술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총 5개 항목, 천식 적정성 평가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지속 방문 환자 비율△흡입 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비율 총 3개 항목,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총 3개 항목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개원 20주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미래 발전 다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9월 23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이해원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 병원장, 이동환 고양시청 등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표창을 비롯해 이사장 공로상, DUMC 혁신상, 동국학술연구상, 모범 교직원 표창장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신경과 김동억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이 뇌경색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성 뇌 백질변성의 악화가 '전두-두정엽 중심형', '방사형 확장형', '측두-후두엽 중심형'의 3가지 뚜렷한 진행 경로를 따른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인 뇌졸중 환자 1만 명과 영국 정상인 4만 명의 뇌 MRI를 기계학습으로 분석, 성별 및 위험인자에 따른 뇌 백질 변성 악화의 경로 차이를 규명했다. 세 가지 진행 경로는 뇌경색 이후와 관련이 있었는데, 전두-두정엽 형은 재발 위험이, 측두-후두엽형은 뇌출혈 부작용으로 예측이 나왔다. 현재 MRI만으로 향후 진행 패턴과 일반인의 발병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제30대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선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가 지난 10월 24일~2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된 제53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권범선 교수는 2027년 11월부터 회장으로서 학회를 끌어 나갈 예정이며,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다. 권범선 교수는 “회장직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며, 재활의료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재활로봇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맞추어 재활의학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불교상담학술상 최우수상 수상

김동일 한방병원장이 지난 10월 12일 군포 정각사에서 열린 제5회 불교 상담학술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가면우울증 환자의 불교 치유 상담' 논문을 통해 난임 여성과 중년 남성의 가면우울증을 불교 상담학적으로 해석하고, 통합적 치유 모델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불교상담학이 단순 이론을 넘어 실천적 치유의 길을 열었음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병원-다학제 협력
생태계 구축, 융합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31일 AI-Driven Healthcare Innovation

Forum 2025'를 주제로 융합포럼을 개최했다. AI 헬스케어 및 의료 분야의 최신 융합 트렌드를 공유하고 활발한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포럼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백용해 병원장)과 시헬스케어&윤리연구소 (신성준 소장), 디지털의료AI연구소(남기창)가 주관하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공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이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행사는 백용해 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9명의 연사 발표가 이어졌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기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진료협력센터,
협력병의원 초청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10월 21일 '2025년 협력병의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 병의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흔한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좌장은 광범성 여성 종양센터장과 이호준 진료협력 센터장이 맡으며 ▷갑상선 기능 이상의 진단과 치료 (내분비 내과 이승은 교수) ▷갑상선 결절, 무엇이 수술을 결정하는가? (외과 반은정 교수) ▷부인암의 예방(산부인과 이채형 교수) ▷가임력 보존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산부인과 김란희 교수) ▷유방통증, 혹시 암일까요?(외과 김하경 교수) 순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의 · 한협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모색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과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은 10월 27일 '의 · 한 협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 경기도 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호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진관사 국행수륙재, 의료지원 동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서울 진관사에서 봉행된 '광복 80주년 기념 2025 진관사 국행수륙재'에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회향을 위해 함께했다. 의료지원팀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백용해 병원장이 직접 수륙재에 참석해 헌화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교종립병원으로서 자비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며,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지원과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결핵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적정성 평가, 모두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결핵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군 확인 검사 실시율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 △약제 처방 일수율 △확진 후 1년 내 치료 성공률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은 외래에서 적절히 관리될 경우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어 꾸준한 진료와 치료가 중요하다.

개원 34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10월 17일 개원 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병원의 발전을 함께 축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의료지원을 기원하는 자리였으며, 지난 3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1991년 개원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의 대표 종합병원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의료 발전을 선도해왔다. 신혜경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AI 초음파 영상진단기 도입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최근 삼성메디슨사의 인공지능(AI) 초음파 영상진단기 'HERA Z20'을 도입했다. HERA Z20은 초음파 영상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라이브 뷰어시스트(Live View Assist)' 기능을 탑재해 진단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고해상도 화질을 바탕으로 태아 성장 측정, 3D 얼굴 구현, 자궁 질환 진단 등 여성과 태아의 정밀한 건강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장비 도입은 첨단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료 정확도 향상과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최신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꾸준히 도입해 보다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 유괴 및 무단이탈 환자 대비 도상 훈련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9월 16일 아동 실종 및 유괴 상황 발생 시 발령되는 코드핑크(Code Pink)와 무단이탈 환자 발생 시 발령되는 코드오렌지(Code Orange)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병원 내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전 직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숙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실종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대응 조치까지 각 부서별 행정 지침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며, 실제 상황에 준하는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세계 환자안전의 날 기념,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2025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 행사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소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의료진을 대상으로 퀴즈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소아 및 보호자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환자안전체험'을 통해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진행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사찰음식 체험, 공양간 클라쓰 진행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신행활동의 일환으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찰음식은 한식의 원형을 계승한 우리 전통 음식 문화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조리 과정을 넘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사찰음식 만들기는 참여자들에게 불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도법사 보경스님의 지도하에 진행되며, 연말 신행활동 우수자 포상평가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완화의료센터에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 벤치마킹 방문

국내 한방병원 최초로 완화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완화의료센터에 지난 10월 17일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천대부속길한방

병원이 완화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함에 앞서 운영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센터의 설립 배경, 운영 체계, 진료 프로세스 등을 소개하며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완화의료센터는 한의학적 치료와 통합적 돌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한방 완화의료 모델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사찰순례, 제따나와 선원 방문 통한 마음수행 체험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11월 8일 교원 및 교직원들이 지도법사 보경스님의 지도 아래 제따나와 선원을 방문하여 마음수행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따나와는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안거를 보내시며 수많은 가르침을 설한 장소로 유명하다.

이날 법문을 이끈 제따나와 선원장 일묵 스님은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잘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일상 속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우 병원장은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해법을 제시해 주신 보경스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순례가 교직원 모두에게 마음의 쉼표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시 공덕

지난 8월 4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익명의 두 스님**께서 먼 지방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아 4천만 원의 보시금을 전했다. 이번 보시는 어떠한 대가나 답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의미 깊은 나눔이었다. 백용해 병원장은 “두 스님의 묵묵한 자비함이 무더운 여름 병원의 벽을 넘어 수많은 생명에 따스한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며 “그 귀한 보시행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참된 치유 공간이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팔손의 **보현심 보살님**께서 지난 8월 4일 동국대학교일산 병원에 발전기금을 보시하며 불자로서의 참된 나눔을 실천했다. 보살님은 평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롭게 살아왔다.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조금씩 용채를 모아온 보살님은 이를 불교병원 발전을 위해 쓰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셨다. 보현심 보살님은 “적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실천했을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겸손한 말씀과 묵묵한 행보 속에서 진정한 보시의 의미가 다시금 빛났다. 백용해 병원장은 “보살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환자 중심의 참된 치유와 불교정신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8월 12일 **익명의 비구니 스님**이 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당부하였으며, 평소 불교 종립병원의 역할과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본원의 지도법사인 해능스님과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는 평소 스님이 근검절약하며 모은 소중한 정재로 “어려운 병마와 싸우는 암환자들에게 의미있게 쓰이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스님의 뜻에 따라 암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는 “적어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순수한 나눔의 뜻을 담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5천만 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불교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용해 병원장은 “개원 20주년에 전해진 이 따뜻한 보시는 큰 감동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며 “자비의료 2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의료 100년의 역사를 만드는 마중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메타프랜즈**로부터 병원 발전기금 1,31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순덕 회장을 비롯해 임완숙 고문 등 메타프랜즈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병원 주요 시설 라운딩과 법당 참배를 통해 병원의 불교적 정체성과 의료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순덕 회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메타프랜즈 회원 도반들의 십시일반 보시 동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불교병원의 자비행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병원이 첨단 의료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 왕암사 前 주지 **故 벽진 자성 큰스님**이 원적에 들기 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2억 원의 발전기금을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남겼다. 故 자성 큰스님은 평생 근검절약과 보시행으로 불교계의 귀감이 되었으며, “불교의 공익과 중생의 이익을 위해 써달라”는 유지를 전했다. 이에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2억 원, 불교방송(BBS)에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회향하고, 법체는 충북대학교병원에 기증했다.

불심으로 평생 근검절약의 삶을 실천해 온 **익명의 보살님**께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의료장비 구입기금 1억 원을 보시했다. 보살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라 말씀하시며, 이번 보시를 자비행의 실천이자 회향의 인연으로 삼으셨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살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최신 의료장비 확충과 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익명의 스님**이 병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진 이번 기부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2천만 원은 병원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자 환자들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숙 대의협력홍보팀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익명의 스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기부금은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하여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은 치료비 3천만 원과 선물을 난치병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소아운동 및 작업치료실을 방문하여 난치병 어린이 2명과 함께 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격려했다.

진우 큰스님은 “불교계가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하며 아픈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100만원 미만 기부자																											
故 벽진 자성스님	200,000,000	각무스님	금곡스님	김영려	나경스님	무진스님	법진스님	손귀득	오금남	이금나	이정스님	장정화	정효스님	최규형	현견스님	감로수	금오스님	김영미	남유화	문수년	법천스님	손명희	故오기남	이나현	이정우	장정효	제아람	최금례	현근스님
익명	160,533,000	강경임	김가빈	김영미	남정애	문장우	법해스님	손민표	오명옥	이도권	이정은	장총섭	조갑자	최무환	현문스님	강명숙	김강림	김영복	남현미	밀엄스님	보경스님	손영옥	오미정	이도현	이정화	장태영	조동삼	최문전	현수스님
담교스님	100,000,000	강석진	김경숙	김영은	남화연	박경숙	보경스님	손재현	오성은	이동욱	이정희	장호근	조상현	최병철	현암스님	강세연	김경숙	김영진	노경란	박계숙	보관스님	손주연	오수진	이동환	이종철	재오스님	조성만	최보은	현우스님
KB국민은행	100,000,000	강시우	김경옥	김영현	노명서	박관	보관스님	손주영	오영선	이명순	이주현	적조스님	조소영	최상돈	현재호	강은석	김경희	김예경	너지스님	박나현	보관스님	손채령	오인숙	이명혜	이주희	전경숙	조수진	최성옥	현진스님
민*현	100,000,000	강인자	김경희	김용배	담원스님	박대호	보리수	손효정	故오정열	이명희	이준길	전술이	조승호	최영범	해광스님	강태양	김관희	김용섭	대공스님	박동우	본각스님	손효진	오진숙	이문정	이지영	전수진	조원복	최영자	해근스님
김래숙	70,000,000	강태완	김광기	김용숙	대교스님	박동진	봉만스님	손희진	오치훈	이문희	이지영	전순영	조원복	최완우	해능스님	강현우	김광오	김원교	대엽스님	박동화	부경스님	송국현	옥경희	이문희	이지원	전아정	조은주	최유안	해능스님
정환스님	40,000,000	강해진	김국현	김은미	대원스님	박미형	부동스님	송동현	옥천암	이미수	이지호	전용화	조익준	최유정	해도스님	경보호	김귀연	김은정	대한불교조계종	박성미	삼해스님	송운스님	용인스님	이병기	이진희	전은영	조현순	최은희	해인스님
이상호	30,000,000	경조스님	김근우	김은진	봉덕사	박성주	상오스님	송은호	우경스님	이병훈	이찬순	정경윤	조현우	최인영	해연스님	경희스님	김기연	김은희	대한불교조계종	박성파	서경진	송주의	우덕스님	이상미	이창실	정경철	조해진	최인영	해원스님
익명	20,000,000	계선스님	김남숙	김익환	용주사	박세진	서미경	송창숙	우정순	이상현	이춘자	정공스님	조희경	최인주	해일스님	계현스님	김남희	김인숙	대한불교조계종	박수연	서복길	수근스님	우종훈	이서현	이충진	정관스님	조희균	최인하	해정스님
(주)아라니아	15,000,000	고금자	김단혜	김인영	원적정사	박수혁	서연희	수현스님	윤아스님	이선아	이혜원	정기스님	조희연	최인환	해철스님	고명선	김덕희	김재은	조계종	박신선	서영문	신경근	원공스님	이선희	이향년	정길석	종인스님	최재원	호연
김태균	14,169,380	고완영	김도연	김전충	대한불교조계종	박신애	서영진	신경민	원명사	이세임	이향미	정문스님	종일스님	최정미	전기(씨)	경조스님	김근우	김은진	대한불교조계종	박성익	서준	신승인	유경자	이소정	이현복	정미라	주경식	최정숙	홍민재
전국여성불자회 메타프랜즈	13,100,000	고재욱	김도연	김정미	장안사	박애자	서은지	신경수	원해스님	이소영	이향지	정목스님	종찬스님	최정민	홍성스님	고지현	김도현	김정배	대한불교조계종	박옥석	서지원	신대규	유광옥	이수철	이현숙	정미라	주경희	최정화	홍민희
성학스님	10,090,000	고지현	김도현	김정배	대한불교조계종	박옥석	서지원	신대규	유광옥	이수철	이현숙	정미라	주경희	최정화	홍민희	고한스님	김동일	김정섭	지장선원	박완임	서찬	신복섭	유기용	이승욱	이현창	정미선	주상봉	최주하	홍승욱
무구스님	10,030,000	공학배	김동현	김정수	대한불교조계종	박원예	서희선	신석재	유미숙	이승주	이형경	정보욱	주선영	최준용	홍유실	원담스님	김명숙	김정애	대광사	박은동	석도스님	신성현	유영철	이애영	이호준	정수스님	주은자	최창익	홍은정
상진스님	10,000,000	관음정사	김명숙	김정형	대광사	박은동	석도스님	신성현	유영철	이애영	이호준	정수스님	주은자	최창익	홍은정	관정스님	김무종	김정혜	덕암스님	박장신	선경스님	신은희	유정임	이양희	이효정	정숙희	주혜스님	최현정	홍주혜
김말연(보현심)	10,000,000	관진스님	김문식	김정훈	덕진스님	박재숙	선도스님	신정용	유주형	이연희	이희영	정승택	지광스님	최현준	하은스님	광천	김미경	김종대	도경스님	박재영	선보스님	신진경	유현숙	이영미	이희지	정승현	지련스님	최효선	환성스님
백수활	10,000,000	이연(씨)	김미경	김종애	도광스님	박정민	선영스님	신학녀	유형주	이영실	인평스님	정심스님	지묵스님	최희원	환련사	구남이	김미경	김지예	도명스님	박정애	선일스님	신현모	육문스님	이영아	인순순	정양임	지연순	탄옹스님	황석환
성법스님	10,000,000	구도환	김미숙	김지원	도민스님	박정자	선재스님	신희정	윤금섭	이영일	인준용	정연희	지문스님	탄정스님	황철희	구병수	김미형	김철	도원스님	박정화	선테크(씨)	심미나	윤민아	이영찬	일진스님	정원기	자유스님	탄하스님	황순덕
라경훈(차필선)	10,000,000	구복심	김미화	김태련	도일스님	박정희	선해스님	쌍계사	윤복연	이예린	일청스님	정원스님	지윤서	편정숙	황영지	원돈스님	김명숙	김태영	동녕사	박준자	성덕스님	안도화	윤수임	이용찬	김경자	정이선	지해스님	표정연	황은선
혜선스님	10,000,000	권경순	김병환	김태영	동녕사	박준자	성덕스님	안도화	윤수임	이용찬	김경자	정이선	지해스님	표정연	황은선	관정스님	김보승	김태윤	동성스님	박종희	성범스님	안숙자	윤순선	이용필	임동하	정일스님	지현스님	하경임	황용선
유창국	5,010,000	권나은	김삼기	김태은	동진스님	박진우	성보스님	안영길	윤승환	이용희	임명숙	정재스님	진경스님	하정희	황원진	권대식	김선경	김하경	드림	박철근	성본스님	안인숙	윤정림	이우섭	임상혁	정재우	진경애	하현지	황윤자
홍선스님	5,000,000	권도윤	김선순	김한성	네트워크	박창호	성수스님	안지은	윤정선	이원찬	임선희	정재현	진묘스님	하형근	황은영	권도환	김선희	김해옥	류대안	박현숙	성수현	양광영	윤정희	이유나	임성우	정정숙	진상스님	한윤희	황재영
성오스님	5,000,000	권두경	김성경	김해정	류주희	박효빈	성숙희	양승엽	윤해서	이유미	임윤정	정주스님	진성스님	한은숙	황정수	권명희	김성원	김현규	마의자	박효진	성원석	양오남	윤혜진	이유하	임재범	정준호	진성스님	한정훈	효경스님
선*스님	5,000,000	권명희	김성원	김현규	마의자	박효진	성원석	양오남	윤혜진	이유하	임재범	정준호	진성스님	한정훈	효경스님	권민	김세민	김현서	만불선원	반공스님	성원스님	엄희경	윤희영	이은미	임재선	정지우	진영숙	한주아	효광스님
밀알복지재단	5,000,000	권번선	김세희	김현준	명순정	배상만	성윤건	여영스님	은정스님	이은석	임종대	정하영	진임자	한주형	효성스님	관삼숙	김소원	김혜정	영심스님	배서영	성진스님	여옥스님	이경미	이은자	임창금	정한숙	차옥련	한지윤	홍수스님
원담스님	4,000,000	권성욱	김수현	김혜진	명환스님	배수현	성창훈	여현스님	이경민	이은정	임태인	정혁수	차행운	한희찬	희탁스님	원돈스님	김수희	김호준	모정은	백용해	성현스님	여취경	이경순	이은주	자유스님	정혜윤	채은미	해덕스님	외
원광스님	2,500,000	권오성	김수희	김호준	모정은	백용해	성현스님	여취경	이경순	이은주	자유스님	정혜윤	채은미	해덕스님	외	권대용	김순덕	김희경	묘전스님	범선스님	세명스님	염윤정	이경원	이재환	장상영	정혜주	천지스님	행이스님	다수
(주)거양	2,100,000	권일진	김숙경	김한례	묘수스님	백윤정	성효은	염연화	이경신	이자경	장대현	정혜은	천수자	해량스님	익명	권태용	김순덕	김희경	묘전스님	범선스님	세명스님	염윤정	이경원	이재환	장상영	정혜주	천지스님	행이스님	하은경
상우스님	2,000,000	권태형	김순례	김희석	묘화스님	법륜스님	소선기	염주홍	이경환	이재환	장상영	정혜진	천우스님	허은경	손묘경	김시연	김희영	무관스님	법명스님	소연스님	영인스님	이구슬	이정백	장유민	정화스님	정진스님	허정길		
이명규	2,000,000	권희재	김연화	김희진	무진스님	법정스님	소행연	오경석	이규보	이정숙	故정윤매	정환기	초은암	허희경															
성화스님	2,000,000																												
공간인테크(주)	1,400,000																												
현담스님	1,090,000																												
윤성스님	1,010,000																												
김영순	1,000,000																												
증용스님	1,000,000																												
손묘경	1,000,000																												
도제스님	1,000,000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퀴즈

1994년 병원 설립 승인을 받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998년 기공식, 1999년 착공을 거쳐 2005년 9월 정식 개원했습니다. ‘부처님 병원’이라는 마음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불자와 동문, 스님들의 정성이 모여 완성된 병원은 팔정도과 십팔계, 사법인, 12연기 등 불교의 교리를 건축 곳곳에 담았습니다.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와 고난도 수술, 첨단 의료시스템으로 환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병원은 올해 뜻깊은 이정표를 맞이했습니다. 2005년 개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올해 맞이한 특별한 해는 몇 주년일까요?

의견

요즘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저 바쁘게 살기만 했는데, 아프고 나니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의료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햇살을 잠시 쬔 그 순간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김영★ 님

칭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내과 홍수화 선생님의 진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렇게 글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땀이 많아지고 예민해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꺼려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와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조용히 건네신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이해하고 계신 듯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어찌 그리도 잘 헤아리시는지요. 깊은 마음을 가진 선생님께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순★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 정답자 : 최재★

참여
방법

-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sokuon@dumc.or.kr
-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충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	------------------	--------------------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취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풀칠하세요.

질
문
선

GIVE & 기부 TREE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자비의 꽃을 피우다
치유의 열매를 키우다



자비의료실천의 숲을 이루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자비의료를 실천하는
큰 숲을 이루어 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존중과 자비의 인술로
더 큰 치유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GIVE&기부 TREE는 건강한 삶과 나눔의 가치를
키우는 나무를 의미하며, 동국대학교병원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바로 기부에 참여하셔서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해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신관건립기금)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문의 031·961·9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문의 054·770·8130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문의 031·710·3712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